

## 언제 끝이 날까?

2-3 달이면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7개월을 넘어간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가을은 잊지 코로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이 가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능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만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를 전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캄캄함이 아니라 작은 터널에 불과 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아감을 얻는 훈련의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다. 세상이 요동을 칠 때가 한 두 번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동부에 있는 채사픽 터널(Chesapeake Bay Bridge-Tunnel)이 있다. 그 터널이 차그마치 23마일이다. 2-30분은 바닷물 밑으로 달려 가야하는 터널이다. 그곳을 가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한 곳이다. 내가 바닷물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터널에 끝이 없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물 밑으로 가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의 끝에는 밝은 빛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또한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다른 가을을 맞으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든지 아니면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39장 18절) 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가을을 멋지게 맞고 웃음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